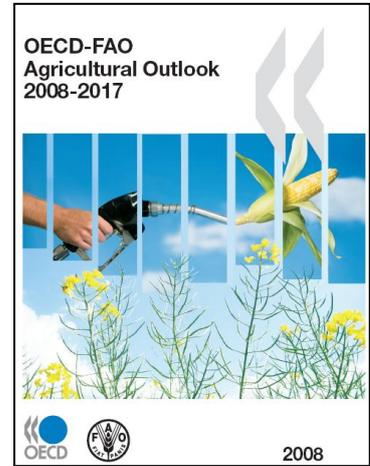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08-2017

Summary in Korean



OECD-FAO 2008-2017 농업 전망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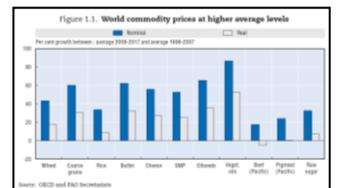
국어 개요

본 농업전망 보고서는 14 번째로 출판된 연간 보고서이자 4 번째로 FAO 와 공동 작업된 산출물로 2017 년까지 특히 온대지역의 농산물 생산, 소비, 무역, 재고량 및 가격 예측에 기초한 농업시장 전망 평가를 제공한다. 이 예측은 거시경제적 조건, 인구 성장, 국내 농업 및 무역 정책, 기술 생산, 기후 여건 등과 관련된 특수한 가정에 의거하는데 어떻게 관련 시장들이 경제발전 및 국가정책에 의해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며 시장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 및 불안정한 일부 부분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OECD 회원국 및 주요 비회원국인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그리고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39 개국과 19 개 지역을 다룬다.

알고 있었습니까? 2000-2007 에탄올 연료 생산량 3 배 증가.

- 보고서에 명시된 대부분의 농산물 국제기준 가격은 적어도 과거의 최고수준 또는 그 이상을 가리키고 있다. 이와 같은 수준은 최근 가격상승을 불러온 일부 요인의 일시적인 성격으로 인해 지속되지 않을 것이고 점차 하락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가격 상승을 불러올 지속적인 요인이 계속 남아있고 실제 장기적으로 하락할 여지가 적을 것으로 생각되는 이유가 우세하고 있다. 이 상황이 일시적이던 지속적이던 농업발전과 기아 및 빈민 해소를 위한 정책은 이 두 가지 특별요인들을 고려하여 할 것이다.
- 2005/06 년 부터의 가격 급증은 부분적으로 곡물생산 주요 지역의 불리한 기후조건과 함께 수확과 가축의 토지 경쟁에 의한 연관효과에 따른 결과이다. 세계 재고량이 낮은 시기에 이 이유만으로도 가격에 심한 반응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건 발생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과거에 벌써 일어난 일로 보다 정상적인 조건을 지속적으로 되찾고 공급이 계속 유지되면서 가격은 하락하게 되었다. 보고서는 이런 일이 몇 년후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가 없다고 본다.
- 가격이 현 고수준에서 떨어진 후에도 중기적으로는 과거 10 여 년간 보였던 수준 보다 더 높은 평균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농산품 공급(전체적으로 생산성 수익)을 이끄는 주요 원동력이 식량 및 식품 수요 그리고 대부분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해 쓰이는 산업적 수요를 확정하는 요소들 보다 최종적으로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 결국 실가 가격은 과거에 비해 그 정도는 덜 하겠지만 하락세를 보게될 것이다.
- 공급 측면에서 보고서는 수확 공급을 결정하는데 있어 수확의 지속적인 성장이 신경작 분야보다 더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천천히 증가하고 있는 유제품 및 축산물은 우유 및 쇠고기 생산 증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다른 외화에 비해 미국달러의 강세화를 기본 가정으로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에 해당되는 국가는 생산증가 장려를 위해 국내물가 조정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 요인들은 서로 결합되어 세계농업 생산 성장을 유지시켜준다. 그러나 일부 요인은 유가 상승에 따른 생산 고비용으로 인해 공급 삭감을 초래하며 그 촉진작용을 감소시킨다.
- 수요 측면에서는 식생활 변화, 도시화, 경제성장 및 인구 증대가 개도국의 식량 및 식품 수요를 이끌고 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식량 및 식품 수요가 농업 수요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 중 맨 윗자리는 점점 확장하는 바이오에너지 부문의 연료 보급을

그림 1.1. 세계물가 최고 평균치



위해 급증하고 있는 원료수요가 차지하고 있다. 바이오연료 수요는 식량 및 식품에 따른 수요 증대보다는 적지만 최근 10 여년부터 가장 큰 신분야 수요를 차지하고 있고 농산품 가격 상향 변동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 상기된 공급 및 수요의 움직임 결과로 보고서는 중기적 물가 수준이 과거 10 년간 보편되었던 수준을 뚜렷히 넘어서는 평균선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08-2017 평균수준과 1998-2007 평균수준을 비교해볼 때 쇠고기 및 돼지고기 가격은 20% 더 높고, 비가공 및 가공 설탕의 경우 약 30%, 소맥, 옥수수, 탈지분유는 40%에서 60% 사이에 있을 것이며, 버터 및 유량종자는 60%, 식물성 기름은 80%를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보다 느린 속도로 진행되겠지만 이 고수준 가격은 실질액수면에서 예전의 하락세를 되찾을 것이다.
- 아울러, 과거에 비해 가격변동이 보다 심해질 수도 있을 것인데 보고서는 재고량이 충분한 수준까지 채워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최종 식량 비용에서 생필품 비율이 낮아지고 산업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총수요는 농업 부문의 가격 변동에 보다 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기후변동에 의해 기상 조건 및 농산품 공급이 보다 쉽게 변동될 수 있고 수익 기회가 지시하는데 따라 투기적인 비상업 투자 자금이 들어오거나 나간다.
- 이 전체적 배경을 바탕으로 향후 세계농업의 중심은 OECD 국에서 개도국으로 옮겨질 것이다. 개도국은 소맥 외 거의 모든 농산물의 소비 및 생산 양쪽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2017 년쯤에는 잡곡류, 치즈, 탈지분유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일용품의 소비와 생산은 개도국이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와 같은 전환은 국제무역 패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개도국의 수입이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성장이 다른 신흥국 및 개도국의 수출 증가로 포착되는데 있어 그 비율이 보다 높아지고 있다. 개도국의 수출 성장은 다른국에 비해 더 높고 어떤 때는 거의 모든 생산품에 해당되는 수출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세계 총수출량에서 OECD 국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소맥, 잡곡류, 돼지고기 그리고 유제품의 수출 무역을 장악하고 있다.
- 고가격 현상은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좋을 수 있고 나쁠 수 있다. 선진국 및 개도국의 많은 상업자들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시장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개도국의 많은 농부들은 현 고가에 의한 혜택을 적게 아니면 전혀 못 볼 것이다. 하지만

그림 1.2. 세계교역 급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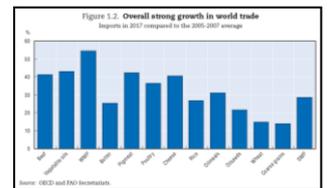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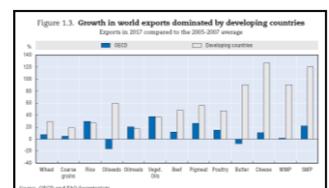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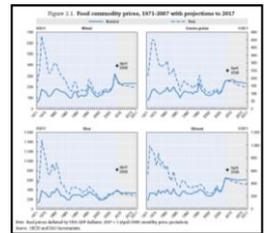
그림 1.3. 개도국 주도의 세계수출 성장



식량수입 개도국의 빈민층 특히 도시 빈민층은 더 많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많은 저소득국의 식량 비용은 보통 소득의 반을 웃돌고 있으며 따라서 보고서에 나타난 고가격 현상은 보다 많은 사람의 영양부족을 불러올 것이다.

- 최빈국가 중 특히 식량부족국가는 고물가 유지와 급변하는 가격상승 시기에 불확실한 식량공급과 더불어 악화된 취약성 전망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교육 및 훈련 투자, 서비스 확장, R&D, 유형 인프라를 통하여 그들의 국내공급 역량을 개선해 나가야할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상기된 바는 보다 장기적인 구체책으로 쓰여지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유효하고 있는 일용품 공급 배급을 원활화하기 위해 일용품 무역이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 본 보고서는 불변의 농업 및 무역 정책을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농산물 및 식품 가격의 흐름은 미래 정책 전개에 의해 많이 좌우된다. 높은 물가의 해로운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인도적 원조를 필요로 할 것이며 이는 시장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 그러나, 수출세 및 수출 금지와 같은 제한적 무역정책은 위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단기적으로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국내 생산자들에게는 장애물이 될 수 있어 공급의 반응을 제한시키며 세계 물품시장의 불확실성 또한 부추길 수 있다. 유사한 경우로 국내 농산물 생산자를 위한 보호 대책은 국내소비자에게는 불이익으로 되돌아가며 절실히 필요되는 세계 농산물 공급 성장을 제한시키면서 생산자들의 해외진출 성장 기회를 한정시킬 것이다.
- 정책적 지원과 유가 흐름은 바이오연료를 위한 농산물 원료의 미래 수요 진전을 많이 좌우할 것이다. 또한 이 수요의 변동 또는 신기술 발달은 세계 농산물 예상가격과 식량 및 식품 활용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농업 공급은 심화된 불확실성과 새로운 개간면적 한계에 장기적으로 맞서게 된다. 혁신을 위한 공공 및 민간 투자 그리고 특히 개도국의 농업 생산성 증진은 생산 기초를 확장하고 물가 급증의 재발 확률을 줄이면서 공급 전망을 현저히 나아지게 할 것이다.

**그림 2.1. 1971-2007 년
식량가격, 2017년까지 전망
(톤당 미달러 단위)**
참고: 미국 GDP 디플레이터
2007 = 1 에 기초한 실제가격



전 출판물은 사이트 www.agri-outlook.org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본 개요는 인쇄된 페이지에서 부터 Excel™ 파일을 제공하는 서비스 **StatLinks** 를 포함시킵니다!

© OECD/FAO 2008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본 개요의 복제는 경제개발협력기구의 저작권 및 해당 출판물의 제목이 명시될 때에만 허가됩니다.

본 개요는 다음과 같은 영어 붙어 제목으로 출판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출판물 중에서 발췌한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본 개요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온라인 서점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oecd.org/bookshop/

자세한 정보는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ublic Affairs and Communications Directorate 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rights@oecd.org 팩스: +33 (0)1 45 24 99 30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AC)
2 rue André-Pascal, 75116
Paris, France

본 기구 웹사이트 www.oecd.org/rights/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